

자유기고

사랑의 꽃 릴레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막상 쌀 나누기 행사를 시작해 놓고 몰랑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앞서 잠을 설칠 때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추세라 작은 기대를 해본다고 하신다.

쌀 나누기에 동참(쌀20kgX50포)하여 500만원 상당을 기증해 주시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작은 가능성,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고마운 마음 이루어 할 수가 없다.



Essay

아버지! 편안히 잠드세요

어느덧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되었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것 같고 돌아 가신 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49세가 지났어요.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여도 쾅 도는 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작년 겨울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가셨지만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요.

것을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점차 좋아지면서부터 배고프시다면 우유며 떡이며의 사 물때 사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무거나 드실 수 없어서 면회 때마다 빈손으로 가면 서 죄스러워 많이도 울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던 4번으로 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자 엄마는 잡수시는 것이나 원 없이 드시게 한다고 그때부터는 가리지 않고 드시게 한 것이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아픈과 고통속에서도 늘 목수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며 "성모님 저 바오로를 지켜달라고" 하시며 기도하셨던 것... 자식을 힘들게봐 아프셔도

괜찮다고 하셨던 것... 지나고 나니 그래도 저희 곁에 계셨던 모든 것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 영전에 가셨지요. 남의 부모는 돌아가셔도 내 부모는 늘 곁에 계시길 잘 알았습니다. 이제 병들고 힘없는 아버지를 주님 품으로 보내 드립니다. 그 안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늘 지켜주시고 은총 주세요.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엄마 걱정 말고 편안히 잠드세요. 먼 훗날 다시 뵙겠습니다.



신델라 주부영양사

세인물

포천병원 응급의학과 지호진 과장

포천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호진(사진) 과장이 4월 27일 첫 출근해 포천 병원이 포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의정부응급의료센터(1339)에서 근무하다 4월27일자로 포천병원에 부임한 지호진 과장은 "포천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 및 양질의 진료로 포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지 과장은 강원대학교 응급의학과를 나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턴수료, 원주기독교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수료, 의정부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응급의학과에 재학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각할 기타동아리 6월2일 첫 정기 연주회

그동안 영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고 봉사활동을 펼쳐온 영북면 각할 기타동아리(회장 유정열)가 오는 6월2일 오후7시 영북면 어린이공원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악을 통한 공감대 형성, 회원의 자아발전과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육구충족을 위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에 영북면 주민은 물론 포천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주부영양사 영북면지부장 hsk5333@hanmail.net

Essay

까맣게 타버린 農心

봄비가 예쁘게 내리고 있다. 정성을 들여 싹 틔워온 새싹들이 생명을 흡수해 어린 잎이 굵고도 하다. 어릴 적 봄비만 내리면 어머니께서 힘든 농부들 쉬라고 잠비가 내린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의아했는데 산돼지가 뛰다니 밭 자국이란다. 밭가에 빙 둘러쳐져 있는 보호막이 있는데도 그 지경이니 예타는 농부의 마음을 까맣게 숯덩이로 만들고 있다.

지친 육신을 비 내리는 날에야 따뜻한 아랫목에서 단잠을 즐기 시던 부모님 모습이 기억 속에 새롭다. 농사일이 기계화되어 수월해졌지만 하기 좋은 말뚝인 것 같다.

일로 무슨 몸살이 나오. 끄덕없어" 다행이다 싶어서인지 껄껄 웃더니 "그런데 그 놈의 돼지가 고추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얼마 전 철원 작은집에 고추모를 3천대나 심는다고 하기에 일손을 덜어줄까 하는 대견한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른 아침 밭에 도착해 비닐 위에 뚫어 놓은 작은 구멍마다 한 포기씩 심는 데 한 시간쯤 지나니 허리도 쪼그린 작디뎨 허풍을 떨자면 기절하기 직전인 것 같았다.

하루가 의사소통이 안되는 야생 동물에게 분통을 터트려 봐야 소용은 없지만 말이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해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돼지는 잡아야 할 것 같다.

농사일에 이골이 난 시동생 내외는 못 따라가도 손놓고 쉴 수 없는 입장이 아니던가. 한 포기를 심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미리 씨워 놓은 비닐 위 곳곳이 찢어져 있어

새벽부터 서두른 일은 점심때가 조금 지난 무렵에야 마무리됐다. 이제 혹독한 훈련 뒤에 즐기는 식사나 메뉴에 상관없이 풀맛이다. 밥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와 샤워하고 단잠에 취해 버렸다.

이름날 철원에서 전화가 왔다. 안하던 농사일에 몸살은 나지 않았는지? 대답은 당당하게 "그깟

고추 3천대 모둠 값이며 비닐, 거름 등 따지다 보면 머리 아파 무슨 일 날 것 같다. 농사일에 위기가 너무도 험난한데 야생동물까지 농부의 마음을 할퀴더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하다. 또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동생 말대로 돼지가 휩쓸고 가도 막을 것은 남겼는지 막연한 기대에 마음을 달래본다.



윤순옥 포천지역의학회교로

자유기고

학생들과 함께 한 효 경로잔치

2007년 5월 12일 토요일, 이동면 장안리 이동중학교에 위치한 백운관(체육관)에서 이동면에 살고있는 노인 50여명을 초청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녀회원들이 기금을 가출했다. 또 1주일 전부터 모든 행사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밥상을 설치하며 음식을 직접 만들어 이 행사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동면 면장을 비롯한 남포도 식탁과 의자와 행사를 맡아 할 모든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단비가 내렸고, 3년 전 이 교정에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때에 따라 우천에 관계없이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게 되었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 위하여 이동중학교 김춘성 교장과 이창학 체육부장, 신승현 도덕교사와 RCY(이동면 청소년 적십자)단체 모인 학생 30여명이 함께 하기도 했다.

이날 불날에 꼭 필요한 봄비가 촉촉이 내리 마침 농번기에 지친 몸을 하루 쉬어가라는 듯 아침부터 단비가 내렸고, 3년 전 이 교정에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때에 따라 우천에 관계없이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게 되었다.

효 잔치를 마치고, 봉사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늦은 식사를 나누며 몇 일을 밥상을 설치하며 열심히 하였던지 미약한 여건 속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다.

노인 분들이 즐겁게 음식을 드시고,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모신 것 같은 흐릿한 속에서 그 동인에 피로가 깨끗이 사라지고, 재정이 허락되는 한 2년에 1번씩 실시한 행사를 1년에 1번, 가을 한번씩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국승복 부녀회장의 환한 미소 속에서 피로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쓰여지는 많은 재정을 이동면 이장협의회회장보영 회장을 비롯 20여개리의 이장과 이동면 협의회장, 최세진 회장과 회원, 국승복 부녀회장과

특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모 공경과 노인공경에 모범을 보인 어른들의 실상에 직접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봉사하고 수고를 통해 노인들을 대접하며, 대접받으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공경에 대한

이 행사를 위해 휴무를 반납하고 땀흘려 봉사하여 주신 이동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밥상을 비롯한 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대표자 회원여러분과, 새마을협회 회원 여러분과, 이장 협의회 회원여러분, 차량 지원과 물질을 찬조 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정과 직장과 일터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이동면 백운관(체육관)에서 열린 효 경로잔치 모습

장승훈의 야구 이야기 ⑨

교육방법 ·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 적용돼야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벌써 절반을 향하고 계절 또한 여름에 거의 도착한 듯 합니다. 우리 포천의 스포츠도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종목들이 대회에 참가하거나 대회를 유치하여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제3회 포천시 야구협회장배 야구대회가 벌써 결승전을 만났고 포천YMCA리틀야구단도 26일이면 장승훈리야구장에서 T볼 대회가 참가하여 실력도 쌓내고 많은 아이들과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것은 희망과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먼저 살아온 어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자녀교육에 힘쓰시는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는 듯 합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바로 이렇게 품소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을 돌보며 여러 가지 일에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포천도 아이들의 교육 방법과 교육환경이 바뀌어야하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존의 많은 교육의 방법과 낡은 해법으로는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한순간에 승자와 패자를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먹고 가르칠 것인가를 다같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100

년의 시간을 두고도 모자라는 교육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 원을 더 주고 이벤트 행사만으로 어린이교육을 말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포천 100년의 미래를 명틀게 하는 한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속담에 "부모가 부자면 자식은 편할지 몰라도 손자는 거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선진의 나라도 말하는 것은 교육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장승훈 포천야구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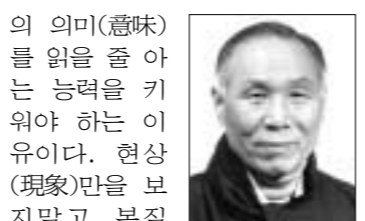
월빙 부사의(不思議) 18 관찰(觀察)과 통찰(洞察)

'관찰은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통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관심'이 중요한 이유이다. 우선은 관찰력(觀察力)을 키워 용어(用語)를 키우려면 기록(記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냥 보고 지나치거나 듣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 그 때 뿐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알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감해지기 마련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강의(講義)를 들을 때 알아들었다는 뜻이고 깨닫는 사람은 강의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새로운 용어(用語)가 나오거나 새로운 표현(表現)이 나오면 그것을 메모하면서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은 그 때뿐이니 메모는 영원(永遠)히 남기 때문이다.(Hearing is forgettable, writing is unforgettable.) 기록(記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기록을 정리(整理)하고 체계화(體系化)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內面化)시켜야 한다. 체계화로 끝나는 안 된다. 체계화로 끝나는 안 된다. 자신의 지식(知識)으로 만 들어야 한다. 자신의 지식으로

쌓아나가야 한다. 축적(蓄積)된 지식체계(知識體系)를 만들어 가야 한다. '축적된 지식체계'가 말해주는 때문이다. 축적된 지식 체계로 평가(評價)받고 축적된 지식체계로 경쟁(競爭)하기 때문이다. '지식체계'가 쌓이면 자연 통찰력(洞察力)이 생긴다.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응시(凝視)하기 때문이다. 응시란 무엇인가? 응시란 명상(冥想)의 다른 표현이다. 응시란 일종의 명상이다. '명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다. 달라야 라마도 말했다. "두 가지를 규명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 의식(意識)의 규명(細明)이고 다른 하나는 몸의 내적인 성숙(成熟)이다. '명상'을 통해 통찰력(洞察力)이 생긴다. '명상'을 통해 통찰력(洞察力)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다. 기사(記事)만을 보지 말고 행간(行間)

의 의미(意味)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다. 현상(現象)만을 보지 말고 본질(本質)을 살피는 습관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다. 현상을 어떻게 파악(把握)하고 있느냐? 본질을 어떻게 이해(理解)하고 있느냐? 항상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기(理氣)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기'의 세계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관(止觀)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란 멈추는 것이다. 선(禪)의 세계에 드는 것이다. '명상'에 드는 것이다. '지'가 왜 중요하겠는가? '지'에 들 때 각(覺)이 오기 때문이다. 깨우침이 오기 때문이다. 명상(冥想)만이 인류를 구제하고 서로 평화(平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기본이요 필수조건이란 설명이다. '명상'을 통해 통찰력(洞察力)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다. 기사(記事)만을 보지 말고 행간(行間)



이규임 한국영성학회 회장

탐방 ① 감바위 목장 젖소와 사료 자체생산으로 경쟁력 높여

이인에 대표 사회봉사활동에도 앞장서

한미 FTA 타결이후 우리나라 낙농업계가 격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낙농현장에 일하고 있는 낙농가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청의정 아이디어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 포천분회 임원이 경영하는 목장을 찾아 경영의 노하우와 비전을 파악해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인에 대표

15년 목장경영으로 장성하여 결혼을 앞 둔 큰아들과 초등학교 교사인 결혼한 작은 딸과 사위를 지켜보며 행복을 느끼고, 큰집이 부모도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료와 육우를 자체 생산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는 포천시 가산면 감바위 소재 감바위 목장(대표 이인에)을 찾았다. 감바위 목장 이인에 대표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 포천분회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감바위 목장은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며 소를 구입하지 않고 목장에서 낳은 송아지를 정성 들여 길러서 고능력 젖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TA협상으로 낙농가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정부에서 우유수급안정으로 낙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농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아름다운 목장에서 주말에 손자, 손녀, 가족 모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정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소박한 꿈이다.

분홍색 꽃단과 야생화가 화사하게 핀 목장에서 풀을 뜯다가 반갑게 맞이하는 이 대표는 4년 전부터 목장과 집 주변을 늘 정원과 목장을 만들었다. 내년에는 목장주변에 꽃과 나무를 더욱 많이 심고 입구에 목장 이를 간판도 멋있게 세우고 아를

다운 목장 만들기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남편 윤석찬 대표는 한우를 사육하며 논과 밭 1만2천여평에 농사짓던 중 자녀교육을 위해 분회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감바위 목장은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며 소를 구입하지 않고 목장에서 낳은 송아지를 정성 들여 길러서 고능력 젖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홍색 꽃단과 야생화가 화사하게 핀 목장에서 풀을 뜯다가 반갑게 맞이하는 이 대표는 4년 전부터 목장과 집 주변을 늘 정원과 목장을 만들었다. 내년에는 목장주변에 꽃과 나무를 더욱 많이 심고 입구에 목장 이를 간판도 멋있게 세우고 아를

현재 이 대표는 경기북부 낙농여성분과 관리위원장, 낙농여성분과 중앙회감사, 경기도여성분과 부회장이며 지역에서는 가산농협고향주부모임회장, 어머니방범대, 적십자에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 나눔의 반찬, 목욕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일 많은 농사와 목장 살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베풀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 대표의 모습만큼이나 목장에 아름다운 일몰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이은미 주부영양사 이사 dmsa823@hanmail.net